

'옥정호 생태관광지 완성' 협조 절실

심민 임실군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만나 예산 확보 건의

심 민 임실군수가 최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을 만나 옥정호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실군 핵심 현안 사업 해결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심 민 군수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대박 관광지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의 관광자원 간 연결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370M 옥정호 생태탐방 교량 건립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출렁다리 개장 이후 지난 3년간 172만명이 방문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군은 붕어섬 생태공원 주변 4km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에 힘써왔다.

그러나 현재, 붕어섬 주변 4km 수변데크 종점인 운암 운운마을에서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교량이 없어, 진입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생태관광지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연결 교량 설치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붕어섬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교량 건립의 필요성을



심 민 임실군수가 최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을 만나 옥정호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실군 핵심 현안 사업 해결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국가하천 및 댐관리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심 민 군수는 운암 인공습지 조성과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섬진강댐 구역 및 하천구역 제척을 함께 건의했다.

2025년도 전북특자도의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댐 구역 및 하

천구역 제척이 필요한 실정으로 임실군의 입장을 반영, 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심 민 군수는 "전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건설 이후 임실군과 군민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와 규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10여 년간 군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만들어진 옥정호 생태관광지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앙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성으로 '자연 속의 정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함파우지방정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 수립 △산생마을 정원을 남원 대포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을 제안했으며, 소태수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 시 사업계획 이행 의무와 기한의 명문화 및 미이행 시 즉시 환수 조항의 제도적 의무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유재산 매각 제도화를 적극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남원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 윤지홍 의원은 한전이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실질적 수혜지역은 수도권이고 피해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남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망

구축으로 분권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김정현 의원은 매년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등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으로 '은행 열매 신속 수거 및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을 요청했다.

김한수 의원은 올해 완료된 함파우 지방정원이 인위적인 시설 위주의 구

남원시보건소, 무료 일반건강검진 적극 독려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무료 일반건강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64세까지 홀수년도 출생자로, 연말까지 무료 검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수검할 것을 당부받고 있다.

관내 지정된 병·의원 17개소에서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신체측측, 혈압측정, 흉부X선 촬영, 소변 및 혈액 검사 등 심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한 11가지 검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기 검진 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추가 검사항목과 국가 암 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근 남원시보건소는 대상자에게

1:1 맞춤형 전화 안내로 일반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개인별 문자·우편물 발송으로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전관관, SNS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1일1가구 소통행진' 추진을 위한 가정방문 시에도 개별 검진 안내와 수검 독려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검진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주민이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성료

순창군발효관광재단, 4만명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 '호응'

순창군발효관광재단(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이 개최된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가 이틀간 약 4만 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 및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고추장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소울푸드 '떡볶이'를 주제로, 순창 고추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5무(無)·5유(有) 정책을 기반으로 한 '방문객 중심 운영'을 내세워, 친절환 서비스 제공, 쓰레기 자갈 운영, 경찰계 도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신뢰도 높은 축제를 실현했다. 축제에는 총 80개의 부스가 설치됐으며, 이 중 떡볶이·분식 판매 부스 46개는 읍·면, 일반 업체, 프랜차이즈, 대학 등이 참여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순창 각 읍·면에서는 전통 떡볶이, 눈꽃 떡볶이, 토마토 떡볶이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메뉴를 준비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불거리와 체험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찾아라 떡볶이', 안우성 셰프와 함께하는 '떡볶이 연구소', 레이먼틴 셰프의 '떡볶이 파인더닝' 등이 마련되어 축제의 흥을 더했다.

또한 순창 고추장을 활용한 1만㎡의 DIY 떡볶이 밀키트 만들기, 고추장 메



주 만들기 체험, 장작불에 직접 굽는 고추장 불떡꼬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축제 최초로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테이블별 QR코드를 통해 웹에 접속하여 모바일로 주문하고, 각 부스의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앱을 통해 실시간 클린존 현황, 축제 지도, 푸른 등롱, 음식 부스 길찾기 기능도 제공되어 방문객들은 더욱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대학교 RISS 사업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힘을 더했다. 전주대학교 류인평 교수는 "관·학 협력을 통해 축제를 준비한 만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순창 고추장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확장하며 순창만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케이팜 박람회서 '우수 지자체상' 수상

순창군이 국내 대표 농업박람회인 '2025 케이팜(K-FARM)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참여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유치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수원메세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주)메세이상이 주관했다.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귀농·귀촌 유치와 농정 홍보를 펼쳤다.

순창군은 △이사정착비 지원 △귀농자 소득기반 조성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 귀농귀촌인의 정착 전 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가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관심도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군은 박람회 현장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주택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농지·주택 매물 정보, 청년 귀농 성공사례 등 실질적인 상담 위주의 홍보를 진행했다.

그 결과 400여 명이 순창군 부스를 방문했고, 192명이 향후 순창군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희망했으며 12명은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착 계획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원시는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희망 업체·제품의 수량과 공급 시기를 정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일반퇴비)으로, 20kg 1포당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 수거 활성화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된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해 1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

남원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를 오는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영농창업을 돕는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만 18세~39세(1985~2006년 출생자)의 청년 중, 농업경영체 독립경영 기간이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추후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장 36개월간 영농정착 지원금이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차등 지원과 농지 확보, 농림사업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